

# 숲 정 이

“즈가리아는 작은 서판을 달라 하여 ‘아기 이름은 요한’ 이라고 썼다.”  
(루가 1, 63)

연중 제12주일  
제1독서: 이사49, 1-6  
제2독서: 사도13, 22-26  
복음: 루가 1, 57-66, 80

## 강론

## 소리

### 겸손한 친구

문선구 신부 / 수류천주교회

물은 원래 고산(高山)지대 높은 산 위에서 사는 자입니다. 이 물은 온 천하를 내려다 보면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라고 우쭐거리며 교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물을 보시고 “물아 너는 네 교만한 자리에서 맨 낮은 자리 제일 낮은 위치로 내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물들은 순명하고 밑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들은 하느님의 명령에 매우 불만을 품고 화가 잔뜩 나서 “나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버티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물이 고여서 썩어 죽은 물이 되었습니다. 산에 사는 사슴이나 새들도 교만하고 하느님께 불순명한 죽은 물을 마시지 않았으며, 더러운 벌레만 가득하게 생겼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명한 겸손한 물들은 돌과 바위 그리고 가시나 덤불의 장벽을 지나서,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깨어지는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졸졸졸 하느님을 찬미 찬양하며 흘러 갔습니다. 밑으로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큰 시냇가와 큰 강이 되어 많은 물친구들을 만났고 일치를 이루어 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물친구들은 본향인 바다에 도착하여 썩지 않는 물이 되었고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이 물친구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교훈과 진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물친구는 깊은 구렁이나 절벽이 나타나면 다른 친구보다 제일 먼저 낮아지려고 하는 지극히 겸손한 친구입니다.

은 세상 사람과 동물, 곤충, 그리고 모든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나누어주고 마시워주는 거룩한 성체의 삶을 사는 ‘무아(無我)의 봉사자’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남과 다투거나 화내지 않는 평화의 마음을 가진 친구이며, 절벽에 떨어지는 고통과 시련이 있으면 더 큰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물거품을 내어 항상 감사하는 낙천주의자입니다. 또한 물친구는 굳센 의지와 절개가 있는데 더럽고 추잡한 오물 속에서도 H2O 성분이 변화가 되지 않는 굳센 지조의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 물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며 영혼입니다. 하늘 나라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보다 더 낮아져 오늘 복음 말씀에서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마리아(바다)는 겸손의 바다에서 승천하셨고 모든 이들의 영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 통일기운 막히니

월드컵 축구가 붙는 쪽쪽 패하기만 하자 여기저기서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통일기운 막히니 축구인들 잘돼?’라는 소리가 나온다. 아마 이것이 ‘민심은 천심’이라는 소리의 참뜻인가 싶다.

대통령은 제 인기나 관리하느라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당은 당들대로 할 일이 따로 있어 민족의 아픔과 행복에는 오불관연이다.

순진한 백성만 불난집에 이리 뛰고 저리 뛰듯이 여기서 억울한 매맞고 머리 터져 입원하고 저기서 최루탄에 피눈물 가슴을 찌어뜯는다.

이 백성 우리 민족의 억울하고 아픈 눈물을 누가 씻어주고 다독겨려줄까. 교회가 할 맘 있거든 어디 나서 봐라. 십자가 고통을 장식품으로 벽에 내걸어 둔 것 아니란다면 어디 한 번 이 아픔의 원인은 어디서 왔고 저 고름의 근은 이렇게 뽑아주리라 하고 나서 보아라.

이런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는 듯하다. 이 6월이 또 어떤 달인가.

5월에 못 푼 한을 6월 예수마음이 풀어주실까. 암만, 그래야지 그래야 예수마음이지.

동족끼리 죽이던 전쟁이 어느 세 40년 전이지만 통일을 애타게 그리던 세월은 그보다 더하다. 얼마나 더 많은 피를 우리나라의 허리로 흐르는 강에 쏟아부어야만 할 것인지...

내일 우리는 통일염원 기도회를 다함께 하늘에 바친다. 문규현 신부님과 임수경(수산나) 자매랑 같이. 그분들은 감옥에서 기도로 함께할 것이다. 감옥 안이 여기서는 ‘안’이지만 감옥에서는 이곳이 또다른 ‘안’일테니 조국의 하늘을 같이 이고 사는 우리는 한과 눈물로 예수님 전에 아뢰 될 것을 아뢰자. 역사의 주관은 그분이 하신다. 우리는 주님만을 믿으니... [☞]

### 숲정이 산책



25일 중앙성당에 모이자./

## 남북 분단-교회의 책임은 없는가?

해방 후 이승만 정부는 38선 이남에 친미 반공노선의 단독 정부를 세우므로 사실상 남북한은 두 개의 한국으로 표면화되었다. 바로 이때,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물론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 지지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서울교구가 '친미 반공'을 지지했다면 단독정부 수립 역시 지지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1947년 정국 반란 이후 단독정부 논의가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교회는 '이승만 노선'을 적극 지지하였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경향신문'을 통해 '단독정부 수립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재헌 국회의원 선거를 적극 지지하였으며 교회 간행물들은 이 선거의 반대운동을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왜 그랬을까? 왜 교회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더 나아가 앞장서기까지 했을까? 이는 당시 교회지도자들의 '민족주의적 인식과 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통일과 분단을 '민족사적 안목'에서 바라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남한 교회는 당시 단독정부 수립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 과정을 검토해보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무조건 떠났던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전쟁 이후 남한 교회의 반공 논리는 더욱 강화되었고 심지어 '털공'의 논리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교회의 반공'을 '국민의 반공'이나 '정치적 반공'과 동일시

하는 엄청난 누를 범한 것이다. 이토록 교회는 남북의 분단현실 앞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배정책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또는 '저항 한번'하지 못했다. 남북 분단이나 통일의 국가적이며 민족적 문제에 대하여 남한의 천주교회는 너무도 등한시해왔다. 결국 '한국 가톨릭교회는 민족의 분단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분단된 민족의 통일에 '공헌도 하지 못한' 셈이다. 아니 '민족 분단에 공헌한 결과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사목 관점에서 본 민족통일의 의미와 통일관/김 춘호 신부)

그리고 인식했든 못했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죄악들- 6·25, 비인간화, 비민주화, 온갖 분쟁-의 동조자가 된 셈이다. 이제라도 이 분단의 상황을 명확히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악'을 제거하기에 교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분단을 방관 내지 동조했던 죄과를 재결합, 통일에 대한 노력으로 속죄해야 한다. 6·25 40주기 그리고 '침묵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날은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교회의 한 지체인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가'를 깊이 숙고하는 날이어야 할 것이다.

### 통일염원 기도회

일시 : 1990. 6. 25(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전주 중앙천주교회  
 주례 : 이병호(빈첸시오) 주교와 전주교구 사제단  
 주관 :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천자문·사자소학  
사군자·전각

### 명륜서예한문학원

원장 선기정 (요섭)  
 효자성당 옆  
 ☎ 82-6492

양재·한복·홍패션

###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아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요  
 ☎ 86-2715

■축개원■

### 여왕미용실

한이름  
백인점

·영남회관  
·여왕미용실

※교우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예쁜선물 증정  
 김아네스  
 ☎ 87-9244

혼수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깨끼한복·각종이불맞춤

### 부인주단

김한중 (요한)  
 활인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잡 관 /

“북한 교회가 보이기 시작한다”

장막 속에 가려 있던 북한 교회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글이나 사진을 통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지만 직접 보고 듣고 온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기 때문이다.

요근래 북한을 다녀온 세 사람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었다. 한분은 문규현 신부이고 두분은 길림성에서 오신 두 남매이다. 이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었는데 북한 교회의 모습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북 속에서 신공하는 교우들’이 상당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젊은층 신도는 거의 없고 어려서 받은 신앙을 유지하기에 온갖 노력을 다하는 교우들이 구석구석 끼여 있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 그들로부터 확인된 사항은 북한의 동포들이 상상 외로 가난하다는 것이다. 고기는 물론이고 두부 한 모 제대로 못 먹는다는 얘기들은 남한이 북한을 비방하기 위한 선전 용어가 아니라 북한 농촌의 실제 상황임을 증언하였다. 형편없는 헌 옷가지조차도 구하기 어려워 아우성치는 북한의 실정에 대한 증언도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증언들을 서서히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준다. 즉 이제 북한의 장막 어디엔가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철저한 철조망 어디엔가에도 개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찢겨지기 시작한 장막이 더 찢기고 숨겨져 있는 개구멍이 더욱 커져 북음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 들어갈 날이 곧 올 것만 같은 이 예감은 나만의 꿈일까?

교 구 소 식

1. 축! 견진 : 6월24일 10시30분 서학동 성당
2. 선택 제5차 주말 : 8월3일(금)~5일(주일)에 있을 선택 프로그램에 미혼 남녀 젊은이를 초대합니다. 수강료(교재, 간식, 교통비 포함)는 25,000원 신청-교육국
3. 교구 여름 코이노니아(캠프) 안내 : 일시-1990. 7. 27(금)-29(일), 2박3일 장소-미정 대상-캠프를 실시할 수 없는 신실, 시골본당 참가비-1인당 4,000원(예정) 신청-7월7일까지(선착순 300명에 해당하는 본당수)
4. 한국외방선교회 7월 성소모임 : 7월22일(일) 오후2시-5시 장소-예수교난회 명상의 집(광주시 북구 일곡동) 전화(062)571-5004
5. 성프란치스코 수도회 성소모임 : 때-90. 7. 27-29(2박3일) 곳-경남 산청 동심원 대상-고등학생 참가비(5,000원) 준비물-성서,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문의처-대전 목동 수도원(042)255-2722
6. 가족문제 상담자 양성 세미나(가정폭력, 여성학대, 자녀학대, 매춘등을 다룸) : 일시-1990년 8월 20일-22일(오전9시~오후5시) 장소-노동사목회관 대상-수도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 신청기간-6월10일~30일 참가비25,000원 신청및 문의-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회분과(02)771-76(교한 2456) 777-2305
7. 축! 영명일 : 24일(성요한세자) 김병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안, 양석현 신부님. 29일(성베드로, 바오로) 서석기, 김병엽, 김영신,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김교동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 —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매연과 함께 대기오염의 주범입니다. 불편하더라도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걷도록 합시다. 도보는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삼 의 피 아 노  
코 아 특 약 점

(코아백화점 3층)  
김 동 옥 (마 태 오)  
채 순 님 (소화대리사)  
☎ 80-1309

장수 양어장 직판

★ 향 어 ★  
(회 <포> 떠드림)  
매장 : 전주농협수퍼 내  
육 태 수 (토 마)  
박 진 희 (살비아)  
☎ 87-8118~9

황현숙 피아노  
과외교습소

사범대음대졸업(피아노)  
음대대학원재학  
(국교생, 중고생, 대학입시생지도)  
황 현 숙 (세시리아)  
☎ 84-5694

요심이 (881) 김병오



**성심木공업사**  
성구·제대·강릉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흔레용기구 맞출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안나 (은순)  
전주 ☎ 77-1747

**全州畫廊**  
한국화·양화·고서화매매  
병풍·액자·수예 (전시표구전문)  
한 택 현 (마르셀리노)  
위치 : 도청앞 백변집 앞  
☎ 85-2220

주식회사  
**현대주방전주전시장**  
영업용 종합주방기구 주문제작  
품질보증  
하 설 균 (요셉)  
북전주 전화국 옆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140-1  
☎ 74-6357

**현대영어과외교습**  
국교부·중학부·일반부  
어머니 한글, 숫자 해독반 모집  
상담문의 86-7666  
위치 : 전주 시립도서관 길목  
최 영 숙 (마리아)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 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 회 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 ※ **축!** 영명: 본당신부님(도마) 축하식-다음주 공식미사후(진신자 축하연에 초대-사목회장) ◎ 문규현 신부, 임수경양 재판보고대회 및 통일염원기도회: 25일, 중앙성당. 저녁7시30분.
1. 예비자 입교식: 7월1일(공식미사) 2. 초등부교사 하계연수회: 26~29일, 송광 제2야영장(26일 2시 까지 야영장에 집결). 3. 중·고교사 하계연수회: 30~7월3일, 송광 제2야영장. 4. 성령기도회 미사: 28일, 저녁7시30분(봉헌준비하세요) 5. 유아세례: 30일, 오후 2시30분(대부·모 선택하여 문서접수 하세요) 6. 모임: \*빈첸시오-29일, 오전9시30분. \*제대회-29일 오전 10시30분.
  7. 전주지구형제회 1일피집: 30일, 오전9시~5시, 노송성당(입회서약-3,000 유가족약-4,000, 종신서약-6,000) 일반인회비-1,000원, 도시락지참. □ 지난주 봉헌금: 1,063,840원

##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1. 회장단회: 오늘 저녁미사후. 2. 성우회, 요셉회: 오늘 공식미사후.
  3. 가정방문: 26, 27일-태1반 28, 29일-태2반. 4. 성서교리: 26일 저녁8시. 5. 빈첸시오회: 28일 오전10시. 6. 초등부 교사 하계연수: 26~29 송광사 2야영장. 7. 중·고등부 교사 하계연수: 30~7월3일 송광사 2야영장. 8. 유아세례: 30일 저녁7시.
  9. 사목회: 7월1일 저녁미사후 10. 밀알회: 7월1일 공식미사후.
  11. 대건화: 남성 3단체 단합 대회로 연기합니다.
- 금주전례: 해설-황선주 ①정승훈 ②유경희  
봉헌-정승훈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박종호 ①박병희 ②김보현  
봉헌-박병희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08,300원 □ 교무금: 724,800원

##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 축영명: 본당신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강하세요. 축하식 없음.
1. 제대회: 공식미사후.
  2. 울뜨레아: 27(수) 저녁미사후.
  3.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후.
  4. 매월첫주 교무금 납부의 날 입니다(다음주).
  5. 성경읽기: 열왕기 상 1장~12장.
  6. 성가정회 임원개편: 회장-이순임, 부회장-최인숙, 열심히 해주세요. 7. 감사: 선봉기 기증-고향산천-안대레사
  8. 금주전례: 해설-김영신 독서①이경진 ②이준봉  
봉헌-유순천, 박귀철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양주태 ②장영미  
봉헌-황용섭, 정영만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84,950원 □ 교무금: 72,000원

##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6월은 예수성심성월! \* 축! 건진성사: 오늘공식미사.
1. 회의: 꾸리아-오늘 오후3시.
  2. 알릴: ①초등부교리교사 하계연수회-6월26일(화)~6월29일(금). 중·고등부교리교사 하계연수회-6월30일(토)~7월3일(화). 장소-송광 제2야영장, 내용-캠핑이론 및 실기, 하교리교제강의 레크레이션. ②통일염원기도회-6월25일 오후7시30분 중앙성당에서, 신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③주일연금-정성어린 봉헌바랍니다.
  3. 감사: 전례에 힘써 주신 성가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579,540원 □ 교무금: 1,253,000원

## \*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111 사목회장 오 직 환

1. 광병수집: 모든 신자분 힘써 바랍니다.
  2. 사목회 모임: 공식미사후.
  3. 요셉회 모임: 공식미사후.
  4. 사라회 모임: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432,210 □ 교무금: 682,000원  
□ 신축헌금 신일총액: 21,674,000원 □ 입금: 11,540,000원

##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 종 충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 오늘은 성요한제사 탄생대축일 입니다. \* 주일금배기운동에 힘써 바람.
1. 울뜨레아: 오늘 공식미사후(부간사업원 선출있음) 2. 성마리아: 오늘 오후2시. 3. 칠아가기도회: 29일 저녁11시.
  4. 알려드립니다: 7월, 8월은 예비신자 교리반을 개강하지 않음. 새로오실 예비신자는 9월부터 교리반오시기 바람.
  5. 통일염원 기도회: 25일(월) 저녁7시30분(중앙성당).
  6. 성가정회: 7월2일(월) 오전11시. 7. 29일(금)은 성베드로와 성바오로사도 대축일 입니다.
- \* 금주보수비헌금액: 450,000 \* 현재모금총액: 141,079,159  
\* 금주보수비신일액: 없음. \* 현재신일총액: 213,231,399원  
□ 지난주 봉헌금: 1,312,140원

##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 병 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환

- ※ 첫 영성체교리: 7월3일~20일까지(오후4시~5시30분), 대상-국교생 3학년이상, 접수-사무실.
1. 울뜨레아: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오늘 오후3시. 3. 성령기도회: 27일(수) 저녁미사후. 4. 청년회원들의 성당플래기 작업: 오늘 오후4시(매주 일 저녁미사30분 성가연습 있음). 5. 교리교사, 지도자 하계연수: 초등부-26일~29일, 중·고지도자-30일~7월3일까지. 장소-송광 제2야영장.
  6. 구역장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7. 금주전례: 박연희 복사-강상근, 정제서.  
봉헌-이정문 부부  
차주전례: 강상근 복사-이정문, 지동호  
봉헌-권태영 부부

□ 지난주 봉헌금: 453,940원 □ 교무금: 527,000원

## \*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사목회: 7월1일(일요일) 공식미사후.  
금주전례: 해설-한병갑 이봉수, 허경애  
차주전례: 해설-장병순 함용광, 안정숙

## \* 효자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 태 환  
사목회장 황 수 석

1. 수요일 예비자 성지순례-오늘 10:30분 성당 출발.
2. 구역봉사자 미리내 성지순례: 7.4(수) 08:30분 출발.
3. 모임안내: ①꾸리아-수 10:30 ②안나회-다음주 11시미사후.
4. 보좌신부님 영명 축하식: 7.1(일) 11시 미사후. \* 김 토마 신부님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5. 지속적인 365일 성체조배에 함께 참여 합시다.
6. 평일미사에 적극 참여합시다.
7. 금주정소 봉사: 거성국민, 풍년연립, 쌍용주택.
8. 건축을 위한 2차헌금 238,130원 힘써에 감사.
9. 매월 마지막주는 교무금 납부주일.

□ 지난주 봉헌금: 801,300원 □ 교무금: 1,444,000원

##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나눔의 주일입니다. 2. 권진교리: 25(월)~30(토) 저녁8:30. 3. 꾸리아회의: 공식미사후.
  4. 돌담회: 오후6시. 5.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29(금) 10시 미사후. 6. 지속적인 성체조배 실시: 28(목) 10~29(금) 10시까지 시간표대로 적극 참석 바람.
  7. 성령수 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8시 미사후.  
성령기도회: 회장-김성자(마리아) 기도봉사자: 이영순(세레나) 찬미봉사자-조신옥(아녜스) 회계봉사자: 권경희(제노베파)  
차주모임: 사목회, 반석회, 요셉회, 권진
- 금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조승훈 ②문경자  
기도-박병래, 이영자  
차주전례: 해설-김인규 독서①송대식 ②윤길영  
기도-정이룡, 박준근.

□ 지난주 봉헌금: 598,800원 □ 교무금: 1,024,000원